

(과) (수) (정) (보)

사과 새 품종 「조나골드」 선발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명절에 적합한 사과 품종육성에 노력한 결과 과실이 크고 병에도 강하며 품질이 좋은「조나골드」 품종을 선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선발한 「조나골드(골든과홍옥을 교배)」는 1977년 미국으로부터 도입 재배시험적응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이 좋고 추석때 수확을 할수있다고 한다.

「조나골드」의 주요특성은 나무가 잘자라고 빨리 익으며 열매무게(果重)가 홍옥에 비하여 1.5배나 더 무겁고 모양은 둥글며 껍질은 밝은 붉은색(鮮紅色)을 띠고 있다.

또한 물이 많을 뿐만아니라 단맛과 신맛이 적당히 함유되어 있으며 향기가 좋다.

그리고 익을때는 9월하순이되기 때문에 추석용으로 적합하며 반점낙엽병(斑點落葉病)과 흰가루병

에 강한 품종이다.

그런데 이 품종은 꽃가루가 없으므로 가루받이나무(授粉樹) 20%를 함께 심어야 한다.

또한 본품종 및 홍옥은 같이 10a당 3천5백kg이 생산되고 있지만 본품종은 품질이 우수하여 고가(高價)로 판매할 수 있다.

소득면에서도 홍옥은 10a당 88만5천원인데 비하여 「조나골드」는 1백29만5천원의 소득을 가져와 46%의 소득을 더 얻을수 있다.

전국적으로 23%나 심어져있는 홍옥품종과 바꿀 경우에는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10a당 경제성은 수량은 3천5백kg, 조수익 1백57만5천원, 경영비 28만원, 소득 1백29만5천원으로 수량지수는 홍옥(紅玉)을 1백으로 볼때 「조나골드」는 1백46%이다.

◇ 과실 주요 특성

품종	익음 때	껍질 색	과실무게	당도	산도	품질	결과성	생산성
조나골드	9월하순	선홍(鮮紅)	300g	14.5%	0.38%	극상	조기결실	품산성
홍옥	10월상순	"	200"	12.2"	0.69"	상상	중중	"
데리셔스계	10월상순	암홍(暗紅)	230"	12.0"	0.25"	상상	중중	중